

국토부 “LA 전역에 법 집행 인력 대거 투입”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명령을 뒤집으면서, 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다시 시작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을 “법치와 미국인 안전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LA 전역에 법 집행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DHS는 카렌 베스 LA 시장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렉 보비노 LA 국경보호국장은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작전 재개”라며 “우리는 LA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하급심의 명령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LA는 이번 단속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캐버노 대법관은 “불법 이민은 특히 LA 지역에서 두드러진다”며 단속 우선순위가 된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LA 지역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민자와 유색인종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정·건설 등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며 영어 구사가 서툰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은 관례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LA 주민들이 단지 외모, 억양,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당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수감돼 채워졌다”며 “오늘의 판결은 수많은 이들을 똑같은 수모에 내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길에서 불체자 의심자 체포 합헌 연방대법원, 외모·언어·직업 근거 합리적 의심 인정

연방대법원이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외모, 언어, 직업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길거리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체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LA 연방법원이 내린 ‘인종·언어·직업만’을 근거로 한 검문 및 체포 금지 명령’을 긴급 항소를 받아들여 해제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연방법은 이민 단속 요원이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체류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잠시 구금해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민법 집행에서 합리적 의심에 따른 검문은 수십 년간 여러 행정부에 걸쳐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시민권자나 합법 체류자라면 단속에 걸려도 간단한 질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며 사실상 시민들에게 신분증 휴대를 요구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며 “정부가 스페니시를 쓰고,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라티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아무나 체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 단속은 총기와 물리적 폭력, 창고형 구치소를 동원한 구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추방 작전’ 추진에 탄력을 주



▲ 연방대법원 사진=shutterstock

게 됐다. 실제로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LA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거리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장기 거주자, 합법 이민자, 심지어 미국 시민까지 체포됐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LA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단속은 합리적 의심 없이 체포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4조의 ‘불합리한 수색·체포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LA 연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를 받아들여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제9 순회항소법원도 7월 28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규모 단속에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도 정부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연방정부 측 변호를 맡은 솔리시터 제너럴 D. 존 사우어는 “합리적 의심은 입증 수준이 낮으며,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에서 불법체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점은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남가주 7개 카운티(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를 대상으로 했던 연방법원의 금지 명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 판결로 인해 남가주에 거주하는 약 1천만 명의 라티노 주민들이 ‘언제든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놓이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수백만 명의 선량한 주민들을 즉각적인 체포 위협에 노출시키는 초법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라지지 않는 통증과 증상,
38년 임상 경험으로 근본을 파고드는

만성피로와 통증, 나이 탓일까요?
진짜 원인은 우리 몸에 매일 쌓이는 ‘신진대사 노폐물’이
만성 염증과 세포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W&H 한의원



김영삼 원장

W&H Acupuncture Clinic

- ✓ **한약 디톡스** :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 간·신장·장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 **통증 클리닉** : 두통 / 어깨통증 / 허리통증 / 좌골신경통 / 통풍
- ✓ **알레르기 & 피부** : 알레르기성 비염 / 아토피 / 습진 / 가려움증
- ✓ **한방 내과** : 고지혈증 / 소화불량 / 불면증 / 체중 관리

whacupunctureclinic.com
 111 W. Bastanchury Rd. #1E, Fullerton, CA 92835
 626 - 393 - 0020

- 중국 의사(MD) 출신
 - 美 한의학 박사(D.O.M., L.Ac.)
 - 前 세계침구학회연맹(WFAS) 베이징 클리닉 원장
 - '오청통체' 개발, 中 발명 특허 및 美 FDA 허가
 - 中 보건업계 과학기술진보상 수상